

과학기술도서의 역할과 출판현실

저술품토 조성이 과제...정책적 배려도 뒤따라야

鄭海相

兼知社 대표

정보화시대의 과학기술

영국 속담에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뒷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과학의 달인 4월을 맞이하여 작금에 걸잡을 수 없이 펼쳐지는 동구권의 체제변혁을 보면서 문득 영국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연유에 서일까.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의 균형에 의해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되던 시기만 해도 동서진영은 군비경쟁을 하면서 이념의 장벽만 굳건히 다지면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불안정한 평화가 오래 지속되자 어느 사이엔가 동서 두 진영의 대결은 체제의 우월성을 국민의 복지 수준으로 가능하는 경제전쟁으로 바뀌었다.

특히 컴퓨터가 서구사회에 보급되고, 그 결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자 소련은 나날이 벌어지는 서방과 동구간의 과학기술상의 격차를 범연하게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무역에서도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되어 폐쇄적이고도 통계적인 공산주의 사회체제로는 개방적이고도 자유경쟁적인 서구 민주주의사회 발전을 따라잡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도 바로 이러한 절실한 인식에서 연유된 정책혁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그 나라 국력의 바로미터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한 나라의 이념과 체제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앞으로 도래할 고도 정보화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사회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생활방식과 사고를 요구하는 사회라고 정확히 단정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예측불허의 사회라 할 수도 있다.

가면 갈수록 다양한 여러 과학기술이 핵심을 이루며 그것이 서로 조합되고,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첨단기술의 위력과 영향은 어느 누구도 그 장래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에서 자기의 주변을 굳굳이 지키며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전문공부를 하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교양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과학저술의 품토조성이 시급

그런데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국민의 현실은 어떠한가.

「출판문화」 1990년 2, 3월호에 실린 신간 통계에 의하면, 신간 발행종수 총 2,900종 중에서 과학기술 도서는 약 10%인 280종, 총 발행부수 약 2,800만부 중 순수과학은 0.2%인 약 6만부, 기술도서는 0.9%인 약 26만부에 불과하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생활과 사회의 놀랍고 눈부신 변화를 직시하고, 체험하면서 왜 이토록 우리 국민들은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급력·권력이 만능시되어 지식의 권위와 생활의 올바른 가치기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의 절박한 인식이 결여되고 있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과학기술에 관한 유능한 저술인이 부족하다. 저술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없지만 저술활동의 품토조성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외국의 훌륭한 도서나 잡지를 소개하려 해도 그것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자를 찾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편집자 양성기관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하고, 심지어 잡지협회와 출판문화협회에서까지 편집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편집자나 번역자 양성은 전연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문화공보부 선정 추천도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선정도서 113종 중 과학기술도서는 고작 8.8%에 불과한 10종이었으며 문학·예술도서(약 46%인 52종)에 비하면 너무나 시대인식과의 큰 격차를 느끼게 하여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게 한다.

오늘날 하루밤 자고 나면 또 다른 낯선 잡지와 신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심지어 인쇄물에 의한 공해라고까지 표현하지만 어쨌든 언론·출판자유 구현이란 차원에서 타박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처럼



대형서점의 과학도서 코너.

다종·다양한 매스컴의 활동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필자, 전문 편집인, PD, 기자 등이 요망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매체에서 과학기술관계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공계 학과를 이수한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참으로 전문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에 대한 과학기술의 올바른 이해와 계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과학기술도서의 남북교류를 제안한다

한국출판연구소가 서강대학교 유재천교수에 게 의뢰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대학 재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독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에 평균 18.5권의 책을 읽고, 전체의 20% 정도가 북한의 원전을 읽어 보았으며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과 감명깊었던 저자로 과학에 있어서는 10위 안에 든 사람이 없었다. 특히 책을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읽는 세번째 이유로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몰라서’를 들고 있는데, 이는 과학도서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차체에 과학기술에 관한 양서의 선정·추천사업을 과학기술처가 과학행정적인 면에서 그 산하기관의 주관하에 매년 펼쳐주기를 간곡히 제안한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김일성의 왜곡된 일대기나 그들의 통일이론이 담긴 이념서적이 원전 그대로 복사되어 지하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전기 조사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기회에 오히려 이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학기술도서는 선별적으로라도 남북이 교류할 것을 제안했으면 한다.

가령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책, 책광기술에 관한 책 같은 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으나 그 진의는 불분하고 과학기술도서에 아무런 주의 주장도 담겨있지 않고, 이념적인 배타주의 의도 끼어든 여지가 없으므로 학계가 비이념적인 고고학자나 조류학자부터 조심스럽게 북한을 노크하듯 출판분야에서도 과학기술도서의 상호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접근일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에 관한 도서가 많이 읽히는 사회야말로 과학기술의 대중화로 나가는 사회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저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유익한 책에 대한 번역출판도 정책적인 면에서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2000년까지 GNP의 5%를 과학기술 투자의 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역대 장관의 과학기술 품토조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총투자액의 적어도 1% 정도는 과학기술도서의 저술·번역·출판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이러한 과학기술 품토조성의 활성화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과학기술도서 출판인 자신들의 미래지향적인 인식전환과 현명한 대처노력에 걸들여 강조하고 싶다.